

프로야구 시범경기 내일 개막한다



2019 신한은행 마스터 KBO 시범경기가 오는 12일 오후 1시 대구(KT-삼성), 광주(SK-KIA), 고척(LG-키움), 대전(두산-한화), 상동(NC-롯데)에서 열리는 5개 경기로 그 시작을 알린다.

3월 23일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열리는 시범경기는 12일 개막해 20일까지 8일간 구단별로 4개 팀과 2차전씩, 총 40경기가 거행된다. 시범경기는 출장 선수에 대한 인원 제

20일까지 구단별 4개 팀과 2차전씩 총 40경기
지난해 경기당 평균 12.6명 선수 그라운드 나서

찾았다. 2017년 경기당 평균 관중 수인 3429명보다 31.8%가 증가한 수치다. 주말 경기당 평균 관중 역시 2017년의 8838명보다 41.7% 증가한 9692명이 경기장을 방문했다.

팬들의 관심 덕에 선수들의 경기력도 정규시즌 못지않다.

시범경기의 성적이 정규시즌까지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83년부터 시행된 역대 시범경기 중 1987년과 1993년 해태, 1992년 롯데, 1998년 현대, 2002년 삼성, 2007년 SK까지 총 5팀이 시범경기 1위 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2001년 준플레이오프가 부활한 이후 시범경기 1위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사례도 14번 중 9번인 64.3%에 달한다.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최다 안타

를 친 LG 채은성은 정규시즌에서 119타점을 기록하며 LG의 종전 한 시즌 최다 타점인 2010년 조인성의 107타점을 넘어섰다. 시범경기 홈런 왕이었던 김하성도 정규시즌에서 보인 꾸준한 성적으로 개인 첫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선수가 시범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는 18일 공식 개장하는 NC의 새로운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는 두 번의 시범경기가 열린다. 올해 올스타전 개최지이기도 한 창원NC파크는 19일, 20일 한화-NC전을 시작으로 정규시즌 개막전 준비에 돌입한다.

겨우내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의 이야기가 막을 올리고 있다.

뉴스스



류현진 “슬라이더 시도 않을 듯” 시범경기 무실점 행진...“활용도 크지 않을 것”

시범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류현진(32·LA 다저스)이 슬라이더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현진은 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카멜백랜치에서 열린 캔자시티 로열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30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LA 에인절스전(1이닝 무실점), 2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20이닝 무실점)에 3경기 연속 무실점이다. 투구 이닝과 투구수도 단계별로 늘리며 순조로운 시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를 마친 뒤 '스포츠타 LA'와 인터뷰에서 "직구가 좋았고 커터도 좋았다. 카운트를 잡는 변화구도 좋았다"고 자신의 투구를 평가했다.

하지만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시범경기에서는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았던 류현진은 "시범경기에서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오늘 큰 것을 느꼈고 슬라이더를 시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슬라이더를 새 무기로 장착하기 위해 신경썼다. KIA 타이거즈 윤석민에게 직접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완성은 되지 않은 모양이다. 류현진은 "아직까지 제구 등이 부족하다. 계속 연습은 하겠지만 경기에서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투구 간격이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운드에서 수비들이 안 치지 않게 빠르게 승부하는 편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제구가 좋다면 타자와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흥민 18분 출전했지만 팀은 패배

토트넘, 사우샘프턴에 역전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7)이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18분을 소화했다. 그러나 팀 패배를 막진 못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에 있는 세인트 메리스 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EPL 사우샘프턴과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27분 투가스 모우라 대신 그라운드에 교체 투입됐다.

오랜만에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던 손흥민은 후반 종료 휘슬이 울릴때까지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기대했던 공격포인트를 살지 못했다. 최근 다섯 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 투입 이후 2골을 연달아 내주면서 1-2로 역전패했다. 이날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원톱에 세우고 2선에 델레 알리와 크리스티안 에릭센, 투가스 모우라를 선발로 내보냈다. 델레 알리는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모우라가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다.

출발은 좋았다. 전반 26분 케인이 문전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침착하



게 골망을 열며 선제골을 넣었다. 세 경기 연속 득점 기록이다. 이후에도 알리와 케인이 몇번의 찬스를 만들면서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된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 후반 31분 안 발레리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거나 후반 36분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에게 그림 같은 프리킥을 얻어맞았다.

다급해진 토트넘은 공격수 페르난도 요렌테를 투입해 골을 노렸지만 허사였다. 결국 1-2로 패했다.

토트넘은 리그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에 그치면서 승점 61(20승1무9패)에 머물렀다.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3점 차다. 사우샘프턴은 승점 30(7승9무14패)를 따르며 17위다.

남이승우·北한광성 이탈리아서 “역사적 대결”...베로나 ‘관성승’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B(2부리그)에서 남북 축구 유망주인 이승우(엘리스 베로나)와 한광성(페루자)이 역사적인 대결을 펼쳤다. 이승우가 웃었다.

이승우는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페루자의 스타디오 레나토 쿠라에서 열린 2018~2019 세리에B 정규리그 26라운드 페루자와 원정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풀타임을 소화했다.

베로나는 마테오 비안케티와 리암 헨더슨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 후반 22분 북한 축구 유망주로 꼽히는 페루자의 한광성이 교체 투입되면서 이탈리아 프로축구 사상 첫 남북 대결이 성사됐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한광성은 지난 2017년 세리에A(1부리그) 칼리아리 갈초에 입단했고 이승우는 같은해 8월 베로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

베로나가 이번 시즌 세리에B로 강등됐고, 한광성이 지난해 8월



세리에B 페루자로 임대를 떠나면서 둘의 대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10월 18일 두 팀이 맞붙었을 당시엔 대결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승우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하지 않았고, 한광성은 부상으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탈리아 프로축구 최초의 '남북대결'이 성사되자 이탈리아 언론도 관심을 보였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한반도에서 스포츠는 대화와 선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이날 이승우와 한광성의 대결은 간단히 지나칠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양키스 다나카, 통산 4번째 개막 선발 등판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31)가 통산 4번째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미국 언론들은 10일(한국시간) 양키스 애런 분 감독의 발언을 인용해 다나카가 개막전 선발투수로 등판한다고 보도했다.

개막 선발이 유력했던 루이스 세베리노의 오른쪽 어깨에 염증이 발견되면서 다나카가 나서게 됐다. 세베리노는 지난 5일 예정됐던 시범경기에서도 등판하지 못했다.

애런 분 감독은 "다나카는 큰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해온 투수"라고 말했다.



다나카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개막 선발로 뛰었고 이번에도 중책을 맡게 되면 통산 4번째다. 이는 노히데오(3차례)를 넘어서 일본인 투수 최다 개막 선발 기록이 된다.

그러나 다나카는 과거 개막 선발 3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만 기록했다. 다나카는 지난해 27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승 6패 평균자책 3.75의 좋은 성적을 올린 바 있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산천, 참새미골, 회현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